



한국사슴연, 임원회의 개최

- 야유회, 농장탐방 적극 추진키로 -



한국사슴연합회(회장 강준수)는 지난 8월 21일 연합회사무실에서 12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4/3분기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강준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경제의 침체와 노사분규, 소비심리의 위축 등으로 사슴거래가 중단되고 녹용판매도 부진해지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겹치고 있다”며 “사슴연합회는 고유의 기능인 사슴유통을 통해 사슴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추후 활동 및 운영방안에 대해 전회원이 사무실을 이용한 정보교환으로 사무실 방문을 유도하고 지역별 연합회원 가입을 매월 5명 이상 목표를 두고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회원의 회비납부를 원활히 하기 위해 지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야유회는 연 2회로 하고 1회는 회원 농장을 방문하여 개최키로 하고 올 가을에는 농장방문을 적극 추진하되 지원이 없으면 야유회로 하고 일정은 10월 8일(수)로 잠정 결정했다.

불법생 녹용대책위원회는 출범 이후 자금난과 양육인의 참여가 부진하고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운영이 어려워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이에 지금까지의 자금사용과 활동내용을 정리해 불생대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향후 대책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키로 했다.

한편 연합회는 회원으로만 가입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회원에게도 현행 각종 홍보물이 전달되는 방식을 타파, 경비절감 차원에서 현회원을 정비한 후 정예회원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민국양육**